
 ◆ 會員社 動靜 ◆

金星電線(株), 사업비중 대폭 확대

金星電線(株) (代表 : 權炆久)는 올해 전선부문의 매출 목표를 지난해 보다 8% 증가한 6천5백억원으로 책정하는 한편 일반영업을 통한 매출을 확대, 관납 비중을 2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금성전선은 특히 매출액의 13%인 8백50억원을 연구개발 및 시설확충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사업 다각화를 보다 강화하고 해외수출시장 확대 및 기술수출등을 통한 국제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성전선의 올해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지난해 총 매출액중 22%를 차지하던 관납비중을 올해는 19%로 낮추고 기존 케이블 사업보다 시장 성장성이 높은 기기용 전선, 권선을 비롯 특수 알루미늄 합금, 산업용 고무, 커넥터, 리드프레임등 전선관련 소재부품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금성전선은 또 동남아와 중동지역등 기존 수출지역이 자체 생산시설을 갖춰 수출이 축소될 것으로 판단, 제조설비와 기술인력 수출에 주력하거나 합작법인등 현지생산체제 확대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전력으로 바뀌나갈 계획이다.

금성전선은 이와함께 1백 26억여원을 투입, 경북 구미공단지역에 8만2천여평의 仁同공장 부지를 매입, 올 하반기부터 특수 알루미늄 합금을 비롯 고무 및 광통신 제품생산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개방화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금성전선은 오는 2000년 세계전선업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전력케이블 및 통신케이블의 해외생산 등 해외사업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중국 베트남 루마니아 등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합작법인 설립 프로젝트중 베트남 및 중국 현지합작법인 설립을 올해안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성전선은 또 세계각국이 국가기간 산업인 전선의 생산을 자국화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완제품

수출 보다는 제조설비나 기술인력 수출형태가 유리하다고 보고 플랜트 수출도 확대키로 했다.

이 회사는 플랜트 수출 원년인 지난해 중국과 이집트에 각각 3백 20만달러와 60만달러 규모의 플랜트를 수출해 5억원가량의 기술료 수입을 거두었다.

이와함께 금성전선은 올해 제품수출도 지속적으로 확대, 지난해보다 4백만달러 늘어난 2천9백만 달러치를 수출할 예정이다.

금성전선이 올해 최우선 사업목표를 해외진출 확대로 책정한것은 국내전선시장의 정체로 내수확대에 한계가 있어 해외시장 진출로 국내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을 피하면서 유휴 전선생산설비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現代重工業(株), 중전기 부문 사업영역 확대

現代重工業(株) (代表 : 金正國) 중전기 사업본부와 포항제철이 최근 중전기기 분야에서 상호 기술교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부문의 사업을 강화하게 된다.

현대중공업과 포철이 맺은 기술교류협정은 국내최초로 기기메이커와 대수용가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설비문제점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한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기술교류 협종조인으로 양사는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씩 상호방문을 통해 기술협력 및 양사 기술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며 설비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수시로 교환하고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기술교류 협정조인 과정에서 포철측은 최근 발전추세에 있는 교류 가변속드라이브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번 중전기분야 교류를 계기로 양사는 기술교류영역을 플랜트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현대중공업 중전기 사업본부는 2월 중순 초고압차단기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건평 800평, 높이 20.5m 규모로 20억원이 투입되어 건립된 신축 초고압차단기 공장에서는 362KV급 초고압차단기를 주로 생산하게 되는데 기존 공장으로는 초고압차단기의 수주증가에 따른 물량처리가 한계에 도달, '93년도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하여 5개월만에 완공되었으며 이 공장의 완공으로 약 400억원의 생산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신축된 초고압차단기 공장은 먼지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벽면과 지붕을 샌드위치 판넬로 처리하였고 지붕 일부분을 첨단소재인 FRP로 이중처리하여 채광을 좋게 하였다.

啓洋電機(株), ISO 9001 인증획득

啓洋電機(株) (代表 : 朴煥奭)는 국내 전동공구의 불모지였던 지난 1977년 흥익사업 구현이라는 창업이념을 근간으로 일찌기 전동공구의 국산개발과 서비스부문의 품질책임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전산, 전부문에 걸쳐 품질 제일주의라는 QQM이념을 부단히 가꿔왔고 창립이래 국내 제 1의 전동공구 전문 메이커로 성장, 오로지 좋은 제품 만들기에 외곺으로 노력하며 KS 규격획득, UL 마크 획득, Q 마크획득, CSA 규격획득, 품질관리 1등급 공장지정, 품질관리 선도기업 지정, 품질관리대상 수상등 대내외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 받아왔다.

또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여 89년부터는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인 미국 GM사에 자동차용 DC MOTOR를 자체브랜드로 전량수출하여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장기 공급선 관계를 확보하는등 국제적 품질선진기업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여 왔으며, 92년에는 소형 2CYCLE 엔진을 장착한 예초기의 개발에 이어, 93년에는 농기계용 4CYCLE 엔진도 개발하여 신제품을 농기계 메이커에 납품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여 종업원 600명, 매출 570억원의 중견 성장기업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처하기에는 지금까지의 활동 즉, 철저한 고객 지향적이 아닌 생산 중심의 비중이 큰 활동만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찌기 이런 경험은 1989년 자동차용 DC모터를 자체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요구품질 수

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GM사에 전량 수출하면서 느꼈기 때문이다.

이런 새로운 경험과 기존의 품질관리 활동이 공존하던중 우리나라도 1987년부터 발효된 품질보증에 관한 국제 규격인 ISO 9000 시리즈를 채택하게 되었고 기존의 각종 국내 규격을 ISO 기준에 맞춰 개정한다는데 대해 크게 환영하였다. 특히 최고경영자가 평소 GM사의 품질시스템 방식인 지속적인 품질 개선에 의한 고객 만족의 관리체제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품질보증에 관한 시스템을 일원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따라서 계양전기의 QM 활동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ISO 9000 품질보증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조직의 내적인 현대화와 관리체질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부의 능동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同社는 영국 BSI로부터 전동공구 및 DC모타의 설계/개발, 생산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증 시스템인 ISO 9001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大成電線(株), 폼스킨케이블 增設 완료

大成電線(株) (代表 : 梁始伯)는 최근 전화선으로 사용되는 폼스킨 케이블의 설비증설을 완료했다. 동사는 일본으로부터 폼스킨 케이블 생산설비 2대를 300만달러에 들여와 경기도 楊州공장에 설치, 생산량을 연간 4천톤에서 6천톤으로 늘렸다.

大成電線이 이처럼 설비를 증설한 것은 최근 베트남등 동남아 지역의 경제개발로 전선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大成은 올해 수출목표를 지난해 보다 1천만달러가 늘어난 4천만달러로 잡고 있다.

大延電子(株), 유도형 전력보호 계전기 開發

누전경보기 및 계전기 전문생산 업체인 大延電子(株) (代表 : 鄭冀浩)에서 금번 유도형 전력보

호 계전기 전품목을 개발 완료하여 JEC 2500, 2510, 174B 규격에 적용, 한국전기연구소 개발시험을 완료하여 94. 3월부터 신제품을 출하할 예정이다.

동사는 그동안 정지형(전자식) 전력보호 계전기를 생산 판매하여 왔으나, 배전반기기 일체화의 일환으로 작년 판넬메타 생산에 이어 금년 유도형 계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배전반용 계전기기 종합업체로 사업 확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특히 금번 출하되는 유도형 계전기는 선진국(일본) 제품과 동일하게 개발된 계전기로 기존 국내 생산되고 있는 계전기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하게 개발되어 배전선로 및 수전선로에 따라 용도 적합한 계전기를 구분 생산함으로써 제어 기능을 향상시켰다.

그동안 유도형 계전기 사용시 충격, 진동에 약하여 오동작 우리가 많았으며 원판의 탈락 현상등 구조상의 결함등으로 계전기 정상가동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본 신제품은 이러한 점 등을 개선 회전부 원판 및 피보트 등의 오차를 극소화 함으로써 기능을 향상시킨 제품으로 특징은

▲ 보호 협조 특성은 강반한시, 반한시로 한전 선로 배전용과 수용가 선로 수전용으로 구분 제작 제어기능을 향상 시켰음.

▲ 진동 및 충격, 경사 등의 오동작 방지를 위하여

가. 회전부 원판을 광각형으로 설계 Trip부와의 간격을 최대화 하였음.

나. 회전부 원판의 Pivot 및 축수석의 공차를 최소화 하였음.

다. 부품의 정밀화로 기기의 정밀성을 향상 시켰음.

▲ 설치 취급시 기존 계전기와 동일하게 사용토록 규격화 되어 있으며 신제품 국내 출하를 시점으로 금년 상반기중 일본지역으로부터 수출상담을 진행, 1차 주요 핵심 부품을 상당량 수출하고 점차적으로 완제품으로 수출키로 의견 접근을 함으로써 유도형 계전기 분야를 선진국 日本유명 상사에 수출하는 국내 첫 계전기 업체가 될 것이다.

朝一盛業電機(株), 品質經營 1등급 획득

변압기 전문제조업체인 朝一盛業電機(株) (代表 : 金榮成)가 최근 공장품질경영 1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로써 朝一盛業電機는 품질경영체제를 확고히 구축, 완벽한 품질의 변압기 생산에 한걸음 더 가까이 진입했다.

朝一盛業電機가 1등급 공장으로 자리잡게된 것은 최고 경영자는 물론 전직원이 총체적인 무결점 품질 제품생산에 매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회사는 특히 지난 91년 9월에 2등급 갑을 획득한 것을 발판으로 생산부서, 관리부서등 전 분야에 걸쳐 품질경영활동을 전개, 1등급 사정을 가능케 했다.

金榮成사장은 「품질극대화를 위한 전직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 무엇보다 기쁘다」며 「1등급 획득이 품질경영의 종착역이 아니라 또다른 출발점으로 알고 고품율·저손실 변압기 생산에 더욱 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1등급 사정을 계기로 종전 품질경영 활동의 질을 진일보시켜 나가고 ISO 9000인증도 조만간 도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사는 올해를 수출 元年으로 삼고 기존 거래선 다변화에 총력을 경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말부터 필리핀에 변압기를 선적한 것을 시작으로 해외시장 공략을 본격화 하고 있다.

瑞日重電機(株), ACB 품목 “품”자 획득

기중차단기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瑞日重電機(株) (代表 : 李鍾植)는 전력 계통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ACB(기중 차단기)를 89년 11월 IEC-157-1TYPE TEST 합격에 이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94년 2월 12일자로 공장 품질관리 심사에 의해 “품”자를 획득하게 됐다.

동사는 항상 품질경영 체계를 확립하여 고객 위주의 양질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 서비스의 제도를 추구하고 있으며 금번의 “품”자 획득으로 일천한 중소기업계에 분수령 역할을 하게 됐으며 오직 단일 품목만을 자사 상표로 꾸준히 생산하므로써 대기업 중심 의존을 탈피 중소기업의 진면모를 보이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국내 수입품 홍수를 차단, 수입 대체 효과 증대와 IEC 회원국에 수출의 물꼬를 트는데 그 공이 지대하다 하겠다.

회원업체 KS 표시허가 획득 안내

업 체 명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종류, 등급 또는 호칭
금성전선(주)	KS C 3611	600V 폴리에스틸렌 케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VCV원형연선 (단심, 다심) 2.0mm²~100mm² · 600VCV원형압축연선 (단심, 다심) 8mm²~100mm² · 600VEV원형연선 (단심, 다심) 2.0mm²~100mm² · 600VEV원형압축연선 (단심, 다심) 8mm²~100mm² · 600VCE원형연선 (단심, 다심) 2.0mm²~100mm² · 600VCE원형압축연선 (단심, 다심) 8mm²~100mm² · 600VEE원형연선 (단심, 다심) 2.0mm²~100mm² · 600VEE원형압축연선 (단심, 다심) 8mm²~100mm²
(주)대한트랜스	KS C 4306	일단접지 변압기	○1차 정격전압 : 22.9KV(Y용), 단상

◆ KOEMA 消息 ◆

◆ 1994年度 定期總會 開催 ◆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2月 28日 한국종합전시장(KOEX) 3층 회의실에서 회원업체 대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